



국가비상사태 대비 2016 을지연습 돌입

남구 22~25일 24시간 비상체제 전환

민·관·군·경 테러대비 훈련 등 실시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한 2016 을지연습이 22~25일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사진은 남구청 1층에 설치된 합동상황실 모습.

한반도 긴장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가운데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한 2016 을지연습이 22~25일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남구도 비상소집 응소를 시작으로 나흘간 강도 높은 훈련 체제로 들어갔다. 남구는

1층 대강당에 합동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비상체제로 전환하는 등 전 직원이 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을지연습은 각종 위기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종합훈련으로 국가 비상시를 대비해 민간군경이 합동으로 매년 1회 실시하는 법정부작 훈련이다.

을지연습 기간 남구는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대비한 구청 소산·이동 △구청사 테러대응 방호훈련 및 소방훈련 △민방공 대피훈련 등을 실시했다.

특히 24일 남구청 광장에서 50분 간 진행된 을지연습 실제훈련은 적 특작부대가 공공기관을 마비시켜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것을 가상해 구청, 남부소방소, 남부경찰서, 128연대 등 5개 기관 200여명 참여해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을 펼쳤다. 한미연합 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훈련(UFG)은 22일 시작해 9월 2일까지 실시된다.

한편 남구의회, 남구통합방위협의회, 새마을운동 남구지회 등 각종 단체들이 합동 상황실을 방문해 을지연습에 참가한 공무원과 군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음료, 간식 등 격려품을 전달했다.



남구가 용호동 천주교묘지에 방치된 안중근 의사의 여동생 안성녀 여사의 묘소를 정비했다. 사진은 안 여사의 손자인 권혁우(대연5동 거주·광복회 부산지부 남부연합지회장)씨가 새로 설치된 비석을 어루만지고 있다. 작은 사진은 정비 이전의 초라했던 비석 모습.

남구청, 안중근 의사 여동생 묘소 새 비석 등 설치

“하늘에 계신 안중근 의사 남구 주민에 고마워할 것”

독립유공자 지정 안돼 40년대 방치

남구청 “독립영웅 혈육 외면 안돼”

남구가 광복 71주년을 맞아 용호동 천주교 묘지에 40년대 방치돼 있는 안중근 의사의 여동생 안성녀 여사 묘소를 정비했다. 기존의 작고 초라했던 시멘트 비석과 상석을 걷어내고 오석으로 된 높이 0.9m의 비석과 0.43m의 상석을 새로 설치했다. 또 주변 잡목을 없애고 묘 진입로 제초 작업도 함께 했다. 안 여사의 묘소가 행정적 지원을 받은 것은 1954년 4월 사망 이후 62년 만에 처음이다.

비석 앞면에는 ‘독립투사 안중근의사 여동생 안성녀(후시아)의 묘’라고 적고 뒷면에는 공기와 부산교대 명예교수(항토학자)가 작성한 여사의 공적 내용과 추모의 글을 새겼다.

안 여사는 오희 안중근이 의거를 일으킨 직후 중국으로 도피해 해방을 맞이 직전까지 독립운동을 펼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항일운동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가 발견되지 않아 국가보훈처로부터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지 못하고 용호동 천주교 묘지에 사실상 방치되어 왔다.

남구는 이러한 현실을 안타까워해 묘 정비를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사)안중근의사기념관을 통한 의견 조화와 변호사의 법률 자문 등 종합적인 검토를 모두 마친 뒤에 정비사업에 착수했다.

안 여사의 항일운동과 관련해서는 현재 로선 유족 증언 외에 이렇다 할 사료는 없는 상태다. 그러나 안중근 의사의 가족 대부분이 의거 이후 독립운동에 투신했고 여동생 안 여사가 만주 일원에서 독립운동단체와 깊은 인연을 맺은 점 등으로 볼 때 안 여사의 독립운동은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안 여사는 하나 뿐인 아들의 며느리로 ‘여걸’ 항일투사를 맞기도 했다. 안 여사의 며느리인 오향선 지사는 김좌진 장군과 함께 대일투쟁의 선봉에 섰던 인물로 영화 ‘암살’의 여주인공 안옥윤에 필적된다. 오 지사는 김좌진에 암살되자 동료들 규합해 1930년 9월 하얼빈 주재 일본영사관을 습격하기도 했다. 건국훈장 애국장에 추서된 오 여사는 지난 2006년 대연5동 자택에서 향년 97세로 별세했다.

안성녀 여사의 손자이자 오향선 지사의 외아들이 권혁우 광복회 부산지부 남부연합지회장(대연5동 거주)은 “할머니는 해방을 맞아 만주에서 서울로 왔다가 6·25가 터지면서 다시 부산으로 피난 왔는데 그때는 부산시장이 천거를 만큼 대우를 받았지만 돌아가신 뒤로는 세인의 관심에서 멀어졌다”고 회고했다. 권 지회장은 “남구 주민을 대표해 남구청이 독립영웅의 혈육에 대한 예우를 해줘 하늘에 계신 안중근 의사가 할머니를 대신해 고마워 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남구는 참배객을 위해 안 여사 묘소 주변으로 여사의 공적과 묘소 위치를 알려주는 안내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10월 21~23일 제20회 오륙도평화축제

시민축제 넘어 ‘글로벌 축제’ 넘본다

1년여 준비… 축제장소 평화공원으로 옮겨

‘오륙도상륙작전’ 등 파격 프로그램 눈길

오륙도축제가 성년을 맞아 ‘오륙도평화축제’로 한글타넨다. ‘킬러 콘텐츠’를 보강해 ‘시민축제’ 수준에 머물던 행사를 의지인과 외국관광객도 아울러 즐길 수 있는 세계적 브랜드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남구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20회 오륙도평화축제 추진상황 보고서’를 지난 18일 5층 대회의실에서 구청 간부, 구의원, 남구문화원 임원 등 48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었다. 전문가 자문, 회의, 벤치마킹 등 축제 준비에만 1년여의 시간이 걸렸다.

관람객의 마음을 훔칠 킬러 콘텐츠는 10월말 열리는 제20회 오륙도평화축제부터 적용된다. 우선 남구가 유엔평화문화특구

임을 적극 활용해 명칭을 오륙도축제에서 ‘오륙도평화축제’로 바꾼다. 축제 기간도 이틀에서 사흘로 늘렸다. 올해 축제기간은 10월 21~23일로 확정됐다. 축제 일정이 부산세계불꽃축제와 겹쳐 개최 시기에 대해 우려도 일부 있었지만 축제의 본질과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 국제연합일(10월 24일)과 맞추는 ‘승부수’를 둔다. 대신 광안대교 불꽃쇼를 초대형 스크린으로 실황 중계해 한 장소에서 두 축제를 즐기는 묘수를 발휘한다. 축제 장소도 기존 백운포체 육공원을 벗어나 접근성이 좋고 개방적인 평화공원과 오륙도 일원으로 옮긴다. 가을 국화전시회와 연계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복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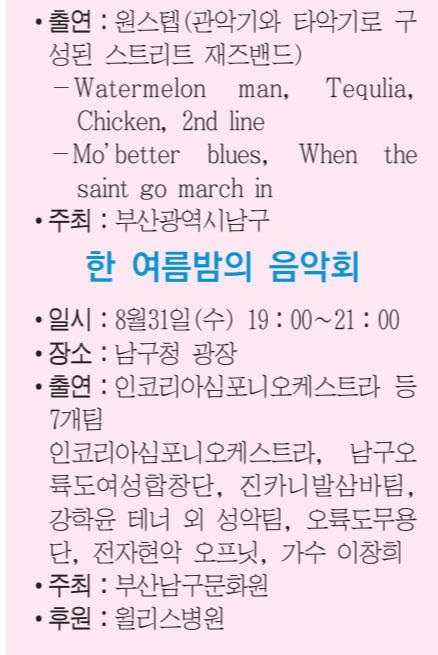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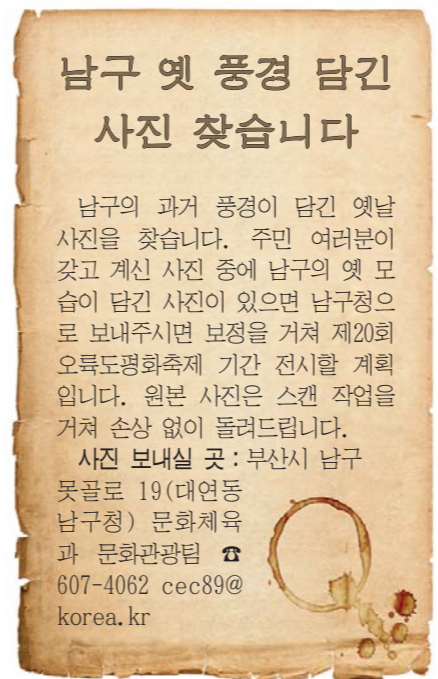
오륙도평화축제는 외형적 변화 못지않게 내실 면에서 신선하고 밀도 있는 프로그램을 포진시킨다. ‘평화·참여·화합의 축제’라는 주제 아래 총 36개 프로그램이 사흘간 펼쳐진다. 세부적으로는 무대행사 11개, 체험행사 9개, 투어행사 4개, 전시행사 6개와 오륙도사랑걷기대회, 백일장, 주민자치박람회 등 6개의 부대행사가 마련된다.

축제의 판을 키우기 위해 남구는 동원 가능한 관내 모든 시설과 자산을 활용할 방침이다. 유엔평화문화특구 내에 소재한 유엔기념공원, 부산문화회관, 부산박물관, 일제강제동원역사관, 유엔평화기념관을 축제에 동참시킨다. 이들 기관과 시설을 묶어 평화스텝프투어와 평화스토리투어 같은 체험행사를 준비한다. 부경대 대학로 문화거리에서 참전용사스토리전도 열린다.

축제의 세계화와 다양성을 위해 부경대·경성대 유학생, 인도문화원 등이 함께 참여하여 세계 각국의 문화 및 먹거리를 체험할 수 있으며 경성대 인도네시아 유학생들이 자국의 민속공연을 선보이는 등 세계문화축제의 장이 마련된다.

국가명승지 오륙도를 축제 한복판으로 옮겨 놓은 점도 흥미롭다. 용호만선작장에서 메가요트를 타고 오륙도를 둘러보는 요트체험과 유람선을 이용해 등대섬에 직접 내려 온 몸으로 오륙도를 만끽하는 ‘오륙도상륙작전’도 준비 중에 있다.

조각상 마임 퍼포먼스, 릴레이 기부 퍼포먼스 등 관람객이 구경꾼이 아닌 축제의 주체로 축제를 온몸으로 즐길 수 있게 체험·투어행사를 대폭 늘린 것 외에 젊은층의 축제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공연 프로그램도 확 바꾸었다. ☎607-4062



9월 3~4일 문현.우암동 석면피해 건강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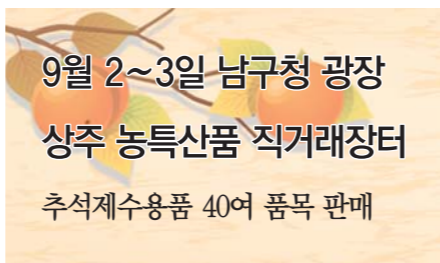
석면 피해가 우려되는 문현동과 우암동 슬레이트 밀집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부산시가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검진 대상자는 문현동 돌산길 일대와 우암동 동향로75번길 및 솔밭로34번길 일원에 과거 살았거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다. 문현동 주민은 오는 9월 3일(토) 남구청 대강당에서, 우암동 주민은 다음날인 4일 우암동 주민체육단련장에서 검진받으면 된다. 검진은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에서 나와 흉부 X선 촬영, 혈액검사 등을 무상으로 진행한다.

이번 건강 검진은 부산시가 석면으로 인해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주민건강영향조사의 일환으로 실시된다.

남구 석면피해 검진			
검진 대상 지역	일시	장소	
문현동 돌산길 일대	9.3. (토)	남구청 대강당	
우암동 동향로75번길, 솔밭로34번길 일원	9.4. (일)	우암동 주민체육단련장	

- 검진시간 : 오전 9시~오후 5시(점심 12시~오후 1시 제외)
- 검사항목 : 진찰, 흉부 X선 촬영, 설문조사, 혈액검사 등
- 준 비 물 :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지 포함), 신분증
- 문 의 :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055-360-3770~2) 남구청 환경위생과(☎051-607-4391)



경북 상주시 주관으로 ‘상주 농·특산물 직거래장터’가 9월 2~3일(금·토) 남구청 광장에서 열린다. 추석 차례용품과 선물구입이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상주 지역 특산품인 한우, 쌀, 꽃감, 사과, 배 등 제수용품을 비롯해 벌꿀, 전마, 기타 가공품 등 신선하고 품질 좋은 40여 품목을 선보일 예정이다.

상주시는 지난 1월에도 남구청 광장에서 설맞이 직거래장터를 열어 지역 특산품을 판매했다. ☎607-4485

남구, 부산 첫 스마트도서관 운영



365일 24시간 신간서적을 대출반납할 수 있는 스마트도서관이 남구청 2층 정보 앞에 설치됐다. 사진은 17일 구청 간부와 남구의회의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개관 및 시연회를 가지는 모습.

500권 적재 ‘책 자판기’ 구청 2층 출입구에 설치

365일 24시간 대출·반납

남구가 신간 서적을 연중무휴로 이용할 수 있는 무인스마트도서관을 개관했다. 생활밀착형 신개념 도서관 시스템으로 부산 지역에선 첫 사례다.

남구청 2층 출입구 옆 무인민원발급실에 설치된 스마트도서관은 지난 17일 개관 시 연회를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높이 2m, 가로 2.4m의 ‘책 자판기’ 형태로 5단 서가에 신간 및 베스트셀러 500여권을 적

재할 수 있다. 무인인식시스템 RFID 기술을 적용해 365일 24시간 도서 대출과 반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 도서관색과 대출이력 조회도 가능하다.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도서 정보를 확인하고 회원카드를 인식하면 바로 대출이 진행된다. 1인 3권, 대출일로부터 15일간 빌려볼 수 있고 대출도서관은 반드시 스마트도서관으로 반납해야 한다.

이용은 책이음이용증(공공도서관 통합도서대출 카드)이나 남구도서관 모바일회원증을 소지해야 한다. 회원증 발급은 신분증을 지참하면 남구도서관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607-6571~5